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가톨릭 성가 221번> 받아주소서	<가톨릭 성가 169번> 사랑의 성사	<가톨릭 성가 416번> 종기도 좋을시고

제 1독서 | 지혜서 12,13.16-19

<당신의 힘이 정의의 원천입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다 스리는 주권을 지니고 계시므로 만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화답송 |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좌)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주님, 제 기도예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는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

○(우) 주님, 당신이 만드신 민족들이 모두 모여 와,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에 영광을 바치리이다.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당신 홀로 하느님이시옵니다. ◎

○(좌) 주님, 당신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와 진실은 넘치시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

제 2독서 | 로마서 8,26-27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 13,24-30



<오늘의 복음: 마태오 13,24-30>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24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25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밭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26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27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28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29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밭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30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 버리고

밭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집 텃밭에는 '희망'을 심습니다 - 김태임 마르타

묵주를 붙든 밤, '가정의 평화'를 외치다

오랜만에 다시 묵주를 잡은 것은 절박함이 있어서였다. 덜컥 이사 올 집을 계약하고는 생애 첫 주택담보대출 금액만 생각해도 숨이 넘어가는 것 같았다. 이사와 함께 아이들도 전학해야 했는데, 반발이 있었던 터라,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컸다. 기도 지향은 이사 후 가정의 평화였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다. 그 절박함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돌이켜 보면, 자연스럽게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은 그나마 버틸 만한 상황이었다. 희망조차 품을 힘이 남아 있지 않을 만큼 버거운 상황에서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이 절망 쪽으로 떠밀려 버린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날 줄은 몰랐다. 돌아보면 알아차릴 기회도 있었고, 막을 수 있었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다. 그때 더 강하게 말했더라면, 더 단호하게 막았더라면. 그러나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 이미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있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새 물을 담을 방법을 찾는 것뿐이었다.

지금처럼 절박했던 적, 생각해 보면 여러 번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 집에 강도가 들고, 묻지 마 폭행을 당하고, 집에 불이 날 뻔했고, 보이스 피싱 사건까지……. 인생 최악의 상황 베스트 5에 뽑힐 사건, 사고들이 스쳐 갔다. 그 모든 순간이 처음이라 두려웠고 무서웠다. 그러나 그 일들은 어떻게든 지나갔고, 뜻밖의 변수, 즉 하느님의 손길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해결되기도 했고 또 전화위복이 되기도 했다. 늘 그렇듯 지금 느끼는 고통이 가장 힘들고 아

프게 느껴질 뿐이었다. 우리 집 주택담보대출 금액보다 더 크고 무거운 상황을 맞닥뜨리고 나니 걱정과 두려움,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 새벽, 무거운 마음으로 묵주를 들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하고 영광송을 바치며 고개를 숙이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고,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대로 엎어져 평평 울고 말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무엇이 그리 속상하고 슬펐나. 우리 가정이 어떻게 잘못될까, 모든 게 무너져 버릴까, 서로를 미워하게 될까, 사랑하지 못하게 될까 두려웠다. 가족이 밋고 마음에 안 들고 원망스러워질까 무서웠다. 그 마음이 한 번 오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집의 불청객, 뿌리 깊은 '척'

기도 중에도, 일하는 중에도 부모님이 떠올랐다. 이 일을 만든 부모님. 이제 늙고 약해진 모습과 현재 그분들의 삶이 떠올라 답답했다.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이어서 원망하지 못했다. 그저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고, 도와드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나 내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 어디서부터가 잘못되었을까. 그러다가 겉으로 드러난 이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모님에게서 나에게로 이어졌다. 겉으로는 하느님께 감사하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긍정적으로 사는 것 같았지만, 덮어놓고 겉만 괜찮은 척했던 건 아니었나. 없어도 있는 척, 모르면서 아는 척, 화목한 척, 행복한 척. 그 '척'들이 오랫동안 반복되며 깊게 뿌리를 내린 악습이 되었던 것일까.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광야를 돌며 헤맸다. 노예의 기억을 육체에서 지워 내는 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 했다. 무려 40년을.

쉬 버리지 못하는 습성들은 의지만으로 지워지지 않는다. 몸에 새겨진 기억, 살아온 날들만큼 깊이 뿌리 내린 것이기에. 마흔여덟인 내가 새벽 기상을 하겠다고 수면 습관을 바꾸는 데도 얼마나 많은 실패와 시간이 필요했던가. 그런데 팔십 년 가까이 살아온 부모님의 굳어진 삶의 태도와 습관들은 얼마나 더 견고하고 깊게 새겨졌겠는가. 그 생각에 이르자 실망과 답답함이 조금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다. '단죄'가 아닌 무언가로. '이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적어도 그 무게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희망'이 자라나는 텃밭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책상에 꽂혀 있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자서전 《희망》을 꺼내 펼쳤다. 교황님의 인생을 엮은 이 책은 희망의 여정을 이야기했고, 서문에서부터 나를 울렸다.

"당신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순간은 제 기억 속에 없나이다."

나의 마지막 날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느님께서는 나와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그리고 이 상황을 이겨 내는 과정 안에도 함께하시겠구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리 내어 읽고 또 읽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희망이 자라나는 텃밭과도 같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희망》, 중에서

텃밭, 작고 소박한 공간이지만 갖가지 생명이 움트는 곳. 땀과 눈물이 스민 곳. 햇빛과 물과 바람이 함께하며 작은 씨앗을 키워 내는 곳. 그것은 우리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었다.

이 책에서 인용된 샤를 페기는 '희망'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두 언니 사이에서 걸어가지만 보

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아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작고 여린 소녀. 그러나 이 소녀는 지치지 않고 온 세상을 품에 안으며 모두를 나아가게 한다. 두 언니와 작은 소녀는 나와 두 동생의 모습으로, 희망이 자라는 텃밭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정으로 그려졌다.

너무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고 처음엔 가족 모두 어쩔 줄 몰랐다. 멍하고 망연자실했고, 거의 포기 상태였다. 사고 수습을 위해 분주했지만, 예정된 가정 기도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전과 똑같이 함께 복음을 읽고, 와닿는 구절을 묵상하고 나누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연스럽게 같은 질문을 품기 시작했다. 하느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지금의 위기가 우리 가정에 참된 희망을 품는 은총의 순간이 될 수 있을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 간 덕분에 온 집안을 구원하게 된 서사처럼.

부끄러운 일은 이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리라. 자책과 무기력, 책임 회피 같은 모습들. 내가 부모님께 바라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실수와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기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기를.
슬픈 상황에서도 한 번 웃어 보기를.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 주기를.
하루를 살아도 당신 삶에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를.**

이 바람을 나에게도 가져본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나씩 하는 것으로.

"희망하고, 또 희망하고, 다시 한번 더 희망해야 합니다."

교황님의 이 말씀처럼 희망은 한 번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매일 아침 기도방 문을 열 듯이, 매일 새롭게 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텃밭은 그렇게 가꾸는 것이다. 언제 틈울지 모를 작은 씨앗을 하나씩 품고, 정성껏 물을 주고, 쓰러지지 않게 버팀목을 세우고, 좋은 거름을 뿌려 주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작은 소녀의 손을 잡고 텃밭을 가꾸어 가리라.

공지 사항

1. 성경 나눔 모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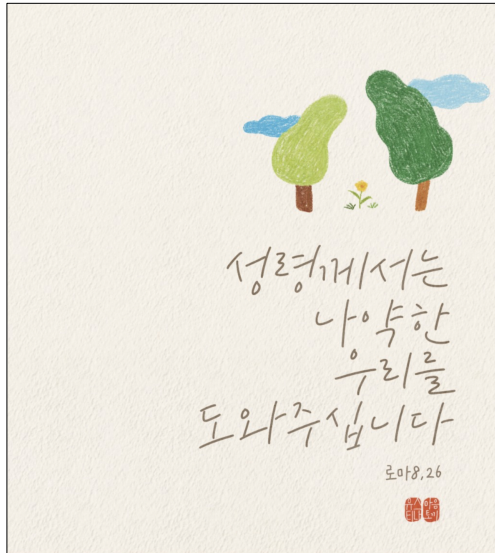
7월 21일(화) - 저녁 7시 묵주기도 후 (Zoom 온라인)

성경: 루카 10,25-37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7월 26일(주일) - 미사 후 교육관 (오프라인)

2. 요한반 소공동체 반모임

일시: 7월 19일 (셋째 주), 주일미사 후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발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수확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발견하시기를 바라십니까?

밀인 사람은 마지막 수확 때까지 끝까지 밀로 남으십시오. 가라지인 사람은 밀이 되십시오.

사람과 실제 밀밭의 밀과 가라지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밭에서는 밀은 끝까지 밀이고, 가라지는 끝까지 가라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밭, 곧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밀인 사람이 내일 가라지가 될 수도 있고, 오늘 가라지인 사람이 내일 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 그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성 아우구스티노, 설교집 73 A

| 공동체 기도 지향

*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7월 축일자들을 위하여>

- * 정유라 엘리사벳 (7.4) * 서미숙 루피나 (7.10)
- * 오선희 베로니카 (7.12) * 박순덕 베로니카 (7.12)
- * 박태오 태오 (7.19) * 박리암 리암 (7.19)
- * 이상명 다니엘 (7.21) * 정수민 비르짓다 (7.23)
- * 조은영 크리스티나 (7.24) * 장현준 크리스토퍼 (7.25)

* 교황님의 이번달 기도 지향 - <인간생명 존중>

인간 생명을 하느님의 선물로 인식하여 모든 단계에 있는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기도합니다.

| 봉헌금 & 교무금 | (7월 11일 ~ 7월 17일)

봉헌금	\$ 196			
교무금	\$ 220			
구민식	양홍석	윤현태	정은영	주정자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

|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7월 공동체 실천 |

가족에게 하느님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기

- 이번 달에는 가족들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미소, 카톡 메시지, 꽃 한 송이 등의 자그마한 표현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해볼까요?